

민주당 '총선 시계' 더 빨라진다

31일~2월 4일 공관위 면접...설 전 컷오프 경선후보 발표
2월 15일부터 경선에 돌입...2월 말에 지역구별 후보 결정

단독 보도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후보 적합도 조사와 현장 실사 등을 실시한 뒤, 설 연휴 이전에 각 선거구 컷오프를 통한 경선 후보자를 발표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다음달 15일부터 각 선거구에서 경선을 시작한다는 계획으로, 후보 공천을 위한 후보자 적합도 조사와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한다.

빠르면 설 연휴 전인 다음달 5일부터 각 선거구의 경선 후보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후보 적합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관위는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위해 국내 여론조사기관 6곳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통신문 제공 안심번호로 시민 대상 100%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구당 조사 대상은 1000명이며, 민주당 지지자 또는 지지정당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후보자 적합도 조사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공관위의 현장 실사도 진행된다.

중앙당은 중앙당 당직자와 타 지역 시·도당 당직자들로 구성된 현장 실사팀을 꾸려 190여개 선거구에 대한 현장 실사에 돌입한다.

현장 실사팀은 각 지역구에 출마한 지역구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들에 대한 세평과 지역 당원, 원로 면담 등을 통해 전반적인 선거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실사팀은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보고서를 작성, 공관위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오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공천 신청자에 대한 공관위 면접이 진행되고, 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선거구별 예비후보자 컷오프를 통해 경선 후보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재심 일정 등을 고려해 후보자 경선은 심사 발표일 10일 후인 2월 15일부터 지역구별로 실시된다.

따라서 광주·전남지역도 늦어도 2월 말께 민주당 후보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다음주께 후보자 경선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심위원회 구성도 들어갈 계획이다. 이처럼 중앙당이 후보자 공천을 위한 속도를 내면서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자들도 중앙당의 현장실사와 적합도 조사, 면접 등을 대비해 조직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애초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 등의 잇단 신당 창당 등으로 인해 후보자 경선이 빨라지면 컷오프 대상자 등 경선 탈락자들이 대거 신당행을 택할 것으로 예상돼 공천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빠른 후보자 공천을 통해 총선 승리 기반을 다지고, 현재 도입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경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경선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 지역구 236곳에 출마할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 광주는 지역구 8곳 중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서구을을 제외한 7곳에서 후보를 공모하며, 전남은 10곳의 후보를 모집한다. 이날 현재 중앙선관위에는 광주 30명(서구을 3명 포함), 전남 37명의 민주당 예비후보가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지역 드론 업체 상당수가 가격·기술 경쟁력 등에서 중국 등 외국 기업에 견줘 뒤진다는 지적이 많다.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드론 천국' 전남, 초라한 경쟁력

전남, 국내 최고 수준 인프라
연구·개발 시스템 활용 못해
드론 생산업체 7곳에 불과
농민들은 대부분 중국산 사용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 시급

#.해남군은 지난해 농사에 쓸 드론 53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줬다. 농민들이 구매한 드론 53대 중 45대는 중국산이었다. 진도 농민들도 지난해 군과 전남도 예산을 지원받아 농업용 드론 34대를 구입했는데 중국산이 절반이었다. 신안군은 아예 지난 2022년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산 드론 공급 업체를 선정했다. 한국 세금으로 2년 간 중국 업체 좋은 일을 시켰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전남지역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지역 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계의 기술 경쟁력 확보나 관련 기업 육성 방안 등이 미흡해 국내 최고 수준의 드론 운영 환경과 인프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파악한 전남지역 드론 교육기관 및 제조업체 91곳 중 지역 내 제작 공장을 두고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는 7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제조업

체(28곳)도 중국산 부품 및 기술의 단순 조립이나 응용에 머물고 있는 소규모 영세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활용·양제·서비스 분야도 10명이 안되는 종업원을 두고 운영되는 소규모 업체가 많다.

관련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갈 중소·중견 기업 부재로 연구개발·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보니 국가 R&D 사업 등에 참여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수한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전국적으로도 국내 드론산업 시장이 1999억(2017년)에서 8406억(2021년) 수준으로 커졌고 3조 9000억원(2032년)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 나오고 있음에도, 생산·제조 분야의 경우 국내 기업 대부분 기술투자가 어려운 영세업체로 가격·기술 경쟁력에서 중국 등 외국 기업에 시장 점유율이 뒤지고 있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다. 정부 투자도 감소세로, 조오섭 국회의원이 파악한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드론 사업 예산은 530억 7600만원(2022년)→439억 4300만원(2023년)→355억 5000만원(2024년) 등으로 줄었다.

당장, 국내 드론기업 연평균 매출액은 1억 7000만원 수준으로 연평균 중소기업 평균 매출(2021년

기준 3억 7000만원)에도 못 미치고 무게 2kg 이상 등록된 드론의 64.7%가 외국산이다. 특히 중국산 드론이 외국산 기체의 90.4%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남도가 '농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남에 공장을 둔 업체가 생산한' 드론을 농업용으로 구매하는 농민에게 판매 가격의 50%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침을 불과 1년 만에 포기한 것도 이같은 현장 실태와 무관하지 않다.

전남도는 2017년부터 지역 업체 육성 및 정비·점검, 서비스 편의 등을 고려해 대리점 등 지역 사업장을 둔 것으로만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대리점 판매 제품 절반(68%) 이상이 중국산 드론인 점을 감안해 2021년 지원 규정을 바꿔 전남에 생산 공장을 둔 업체로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제한했다. 하지만 가격·기술·서비스 등 경쟁력이 중국산 등에 밀리면서 사용자인 농민들 반발을 불러와 1년 만에 '없던 일'로 했다. 당시 농민들 대상 설문조사까지 진행했는데, 중국산 드론의 경우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국내산에 비해 월등하다고 응답한 농민들이 많았다.

▶2면으로 계속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강인, 아시안컵 요르단전을 부탁해"

내일 오후 조별리그 2차전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이 16강행 조기 확보를 목표로 요르단과의 승부를 펼친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대표팀이 20일 오후 8시 30분 요르단과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2차전을 치른다. <관련기사 18면>

'클린스만호'는 지난 15일 바레인(FIFA랭킹 86위)과의 1차전에서 이강인의 ' 멀티골'에 힘입어 3-1 승리를 거뒀다.

한국이 요르단(87위)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더

한다면 E조 최약체인 말레이시아(130위)와의 최종전에 앞서 조 2위까지 주는 16강 티켓 확보는 물론 조 1위를 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이 '엘로카트 세탁'까지 노리기 위해서는 초반 공세가 중요하다. 앞서 바레인전에서 '캡틴' 손흥민과 박용우·김민재·이기재·조규성 등 무려 5명이 경고를 받았다. 엘로카트 2장이 쌓이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한국팀은 E조 2차전만 승리하면 사실상 16강에 오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거친 플레이로 경고를 받아 예선 3차전에 출전하지 않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끊이지 않는 직장 갑질 ▶6면

복스 - '우리시대 만화가 열전' ▶14·15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막 올랐다 ▶19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THE NEW GENERATION
윤조에센스 6세대

Sulwhasoo